

“후정비·마음정비 둘이 아니죠”

신문박의 寺 準

자동차정비 20년 김태준 씨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다리이기 때문에 정비를 잘못하면 인간의 활동을 묶거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차를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씩 풀어 정비할때는 모든 잡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섬세해서 인체에 비유할 만합니다. 나사를 느슨하게 조인되거나 빠뜨리는 것은 수술을 잘못하는 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분야에 대해 이렇다할 체계와 이론이 없었던 시절, 여러 공업사를 전전하며 어깨너머로 실무를 배워 이제는 자동차정비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김태준씨(41·한일자동차공업사 공장장).

김씨는 197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정비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당시만 해도 기능인들을 ‘공돌이’ ‘기름쟁이’로 냉대했던 시절이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정비업이 가장 잠재성이 밝고 노력의 대가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위에 공탄하게 밟고 지날길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길만을 고집하느냐며 손 내밀어 주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정비만이 운영인듯 묵묵히 험한 길을 택했다. 그가 택한 길은 여느길처럼 깨끗하게 닦여있지도 전망이 좋지도 않았다. 그가 지났기에 비로소 길이 되어버린 아주 척박한 땅이었을 뿐이다.”



김태준 씨가 자동차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아무리 복잡해도 구조알면 쉽게 고쳐 ‘기름쟁이’ 냉대 아랑곳 공구와 씨름 칭찬에 빠지지않고 ‘최고’ 향해 정진 진정한 신사는 직업에 충실한 사람 “절망 순간마다 인내가 힘이고 희망”

자동차정비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은 공구들과의 씨름이다. 수십종의 공구 이름과 사이즈를 외우는 일은 예상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 처음보는 공구이고 모양도 비슷비슷해 눈대중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구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지난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정비업계에 일을 하려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선배의 공구들을 훑어보며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연장 심부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같은 견습생활을 1년이상 겪어야 비로소 자동차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공구통을 놓고 처음 차를 만지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고장이었는데 막상 차를 정비해 보니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군요. 하루종일 차와 씨름했지요. 하지만 햇병아리 정비사시절 자동차를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보람은 무엇보다 바꿀수 없었습니다.”

불꽃이 튀던 그의 길은 웬만큼 모습이 갖춰졌고 하나둘 뒤따르는 이가 생겨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훌륭한다고 칭찬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환대에 안주하지 않았다. 김씨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박수와 칭찬이 아니라 자동차정비업계에서는 ‘최고’가 되는 길이었으므로 해본 찬사나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안주할 수는 없었다.

“처음 자동차정비업계에 입문할때만 해도 포니, 브리사 등을 비롯 몇 종류 안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루가 멀다하고 신종차들이 쏟아져 나와 자동차구조는 복잡해지고 부품도 세밀해져 하더라도 공부를 안하면 정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씨는 새

함께 철저한 서비스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훌륭하다고 해도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모두 물거품이고 허깨비와 같다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

“단순히 업소나 개인이 이익을 위해 손님을 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우매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김씨는 손님을 도반처럼 터놓고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인간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소비재로 생각하지 말고 애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정비사의 자질이 주어진다고 그는 믿고 있다.

김씨는 정비사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자존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동차는 첨단 메카니즘의 결정체다. 현대과학문명의 총아인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는 최고기술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긍지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름통은 작업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넥타이를 맨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신사는 넥타이를 맨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김태준 씨가 자동차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김태준 씨가 자동차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김태준 씨가 자동차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놓고기면 참선도 필요없는지...

제 나름대로 10년 가까이 불법공부를 해왔습니다. 어느 때는 신에 가서 며칠씩 참선도 해보았고 혼자서 참정진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놓고기는 공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참선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황한태·서울 서초구 서초동>

누가 참선을 하지말라. 해서는 안된다 하던가요. 사람들은 참선을 한다면서 그저 몸을 도사리고 앉아 있는데 참선이란 몸수행이 아니라 마음수행입니다. 사찰에서 참선을 가르치는 걸 틀리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선이 없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자리를 앉았는 것을 참선으로 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선은 끊어지는데 되겠지요. 참선이란 앉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마조도일선사와 남악회향선사가 기왓장 가는 예기를 나눈 예를 아실 것입니다. 부처를 이루려고 앉아 있노라 하니가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말아야 선이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소변보느라고 일어나면 부처는 되더마나고 했답니다.

는 없다. 왜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쉽게 자력종교다 타력종교다 말하지만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근본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아는 것은 우주법계에서 다 알고 있으니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전가할 수도 없고... 우주와 내가 직결이 되어있는데 떠날길 것이 어디 있어서 떠날지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고한다 하면 그로인해 내 마음이 편해질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짓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면 그냥 마음가는대로 입니. 그러나 사실은 공이요. 여러가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꼭 알려놓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기위해 세우놓으신 것도 하나도 세울게 없다. 그게 부처님법입니다.

사실 이 마음공부라는 것은 지름길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음 빼어놓고는 달리 길이 없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란 사람이 세상에 나고나서 생긴 것이고, 사람들이 좀 더 사람답게 되라고, 완전한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이음선원 대행스님께 물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제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부처님께서나 역대조사님들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마음 본바탕을 밝혀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이지 어떤 방법을 강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하고, 몰라 놓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참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신에 가가 공부가 된다고 하는데 산골에만 부처가 있고 산골에서 나오면 부처가 없습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부처마음을 알니다.

사람이 되라고 해서 가르치고자 생긴 것인데 사람이 되기는 커녕 종교를 가지고 서로 패를 가르치거나 전장을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종교란 있으나하나가 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더 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가 옳으나, 어느게 우수하나를 것을 떠나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먼저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다른지요

저는 기독교도 조금 알고 불교도 조금 알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상이고 불교는 자이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깨쳐서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볼때 결국 가고자하는 목적지는 같은데 방법상에서 하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는 아래서부터 다가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김구상·부산시 남구 대연동>

과보는 피할 수 없습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재난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보는 피할 수 없다고 했으니 정면으로 맞닥뜨리는게 바른 자세가 아닐지요. <홍경문·인천 남동구 고잔동>

누구나 다 불성을 지녔다는 가르침

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이완성이란 나 자신부터 알라는 것이고 나를 알므로써 광대 무변한 제법을 알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상에 의지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맡겨 놓고,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냥 ‘하느님 아버지’에 맡겨 놓고 산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르지만 자기 발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얻을 수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시오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번호 7626655 바라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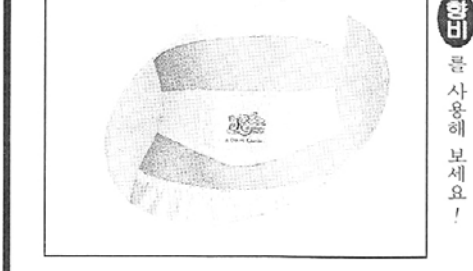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시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윗(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윗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서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끈을 배꼽에 차머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질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갑상선고통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